

주제 발표 I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과 전망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과 전망

하세가와 유키코(전 규슈산업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지난 20-30년을 돌이켜 보면 발표자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같은 처지의 한국어 교사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 교사 교육이라는 주제를 보니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본 발표에서는 그 허전함의 원인과 경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바를 논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한국어 교육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표자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로부터 약 50년에 걸친 한국어 교육의 개요를 학습자 층과 그 시대의 분위기로 나누어 간단히 표1에 정리해 보았다. 이정도 있을 수 있으나 발표자가 50년 가까이 실제로 보고 느낀 바가 이렇다.

표 1 지난 50년간의 일본의 한국어 교육/학습자 개관

| | 학습자 층 | 사회적 분위기 |
|-----------|--|--|
| 1970-80년대 | 재일 한국인, 사회운동가, 매니아 | 소외된 소수파. |
| 1990년대 | 민간교류 확대로 한국어 교육기관 증가. | 소박한 호기심의 대상. |
| 2000년대 | 한류 붐으로 학습자 급증. | 한국에 대한 동경심. 혐한류가 싹틔. |
| 2010년대 | 2차 한류, 3차 한류로 팬층이 저연령화. SNS 보급으로 독학자 증가. | 아이돌에게 열광. 헤이트 스피치 횡행. →금지법으로 잠잠해짐. |
| 2020년대 | 코로나 사태로 Online학습이 정착. 자율학습 확대, 고급 학습자 증가. | No Japan이 걱정거리. 정권교체로 분위기 업 될까? |

1970-80년경에 한국어를 배우던 사람들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한반도 출신이거나 한반도 출신자와 이웃하는 사람들 등, 개인적으로 한반도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사회운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어 매니아 혹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등이 대부분이었다. 발표자 자신은 외

국어 매니아에 속하는데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고 특히 한국어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것도 좋아서 대학의 전공 언어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민단(대한민국 거류민단 : 당시)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련 학교 및 기관을 제외하면 몇몇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공공단체, 사회공헌단체 등, 영리 목적인 아닌 매우 한정된 곳밖에 없었다. 그만큼 한국어 학습은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영위였으며 완전한 소수자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엔화 상승으로 해외여행이 수월해진 일본 사람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어 자연스럽게 한일 민간 교류가 진전되었다. 발표자가 한국어를 처음 가르친 것은 1989년으로, 마침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였다. 90년대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소박한 호기심에 차 있었고, 음식이 맛있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남아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2년 한일축구월드컵대회에 이어 2004년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한류 붐에 학습자가 급증하여 우리 한국어 교사들은 깜짝 놀라곤 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학습자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였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붐의 중심에 있던 중장년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 영향은 나중에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그런 한국에 대한 분위기 변화에 반발심을 품은 사람들이 ‘혐한류’라는 개념을 유포시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2차 한류가, 후반에는 3차 한류라 불리는 붐이 불어닥쳤는데 그 때마다 팬층이 저연령화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정 내의 대 한국 분위기가 아이들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어린 학생들은 한국 아이들에 열광하는데 한국인 거주지 근처 길거리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횡행하는 이상 형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면서 그 혐악했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는 사이 SNS 등 IT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한국어 학습을 진전시키는 독학자들이 늘기 시작한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도 제한되고 할 수 없이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자율학습이 확산된 결과인지 학교 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중고급 실력을 갖추게 된 학생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과 이미 꽤 많은 것을 아는 신입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 상황은 교실 운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한국의 No Japan 운동으로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2020년 봄학기를 많이 걱정했으나 학습자들에게는 별 느낌이 없었던 듯, 한국어로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새 대학 등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과 맞물려 정확한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학습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았다.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간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한국어 교사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학습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말을 알아들으려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날이다.

3.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

일본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은 60년대 이래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이른바 ‘국어교사’가 일본 현지의 재일 한국인

교사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교육’을 맡은 교사에 대한 교육으로, 90년대 이후 일본인 혹은 일본의 기관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그런 교사 연수에 참가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아무래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본 국내 기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교육 기관의 성격상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

하나는 초·중·등교육기관(여기서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양성과 재교육인데 일본 정부인 문부과학성 ‘교원면허증’ 제도에 의거한 교사 교육이며, 또 하나는 대학이나 시·만·강좌를 비롯한 ‘그 외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양성과 재교육이다.

3.1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교육

먼저 전자 즉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한국학 전공 과정이 있는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주어진다. 현재 교직면허증 취득 요건은 2019년에 개정되어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등 18학점과 교과목 및 교과목 지도에 관한 과목 24학점 이상 및 교육실습 5학점 외 학점을 합해서 59학점으로 되어 있다. 교과목 및 교과목 지도에 관한 과목이란 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이문화이해, 한국어 교수법 등이다.

2022년도에 한국어(조선어, 한국조선어) 교원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에 6개교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라는 교과목이 없고, 영어 외의 외국어는 선택과목 중 하나로 한 학교 당 1,2 시간 내지 많아야 6 시간 정도밖에 설정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시간강사 혹은 타 과목 담당 교사의 겸임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 정식 채용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한국어 교원면허증만 취득해도 교원 채용의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직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교원의 정식 채용이 3~5년에 1, 2명씩 이뤄지는 것이 오사카부(大阪府)로, 현재 7, 8명 정도의 한국어 교원이 있는데 이들은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으나 한국어에 특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사카부 내 혹은 그 외 지역의 시간강사 등과 함께 자체적인 스터디모임이나 한국교육원의 연수나 나중에 논의할 학회 주최의 한국어 교사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허증 소지자 부족 문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한국어 수업을 설치하는 고등학교가 늘면서 매우 심각해졌었다. 고등학교한국조선어교육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면허증 없거나 기한부인 특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때는 이 네트워크가 한국어 전공과정이 있는 간다외어대학과 덴리대학의 협조를 얻어 문부과학성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특별강좌’를 2001~2003년도와 2006~2007년도 2차례 실시하여 약 50명의 한국어교원면허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이렇게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써온 제1세대가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되어 또 다시 고등학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족 사태가 벌어질 지경이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정부의 교원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본의 공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통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격이나 지식이 있는 교원이 전혀 없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텅그러니 채용되면 그 학교 내 혹은 그 지역 내의 한국어 교육 위상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고등학교 외의 한국어 교사 교육

고등학교 외의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이렇다 할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세종학당 등 한국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를 중요시할 것이고,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를 뽑을 때도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자격증 소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어느 정도 자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교사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뿐더러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무릇 교사란 가르치면서 자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의문이 생겼거나 지도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어보고 의논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장이나 자료가 중요하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학교, 지자체, 어학원 할 것 없이 한국어 수업이 급증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어 교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대학 교원들도 한국어교육이 전공인 사람은 몇 없었기 때문에 간사이에서는 일단 ‘조선어교육연구회’라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었다. 도쿄에서도 그 당시 김동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안다.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비전문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교육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던 중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문화원이 지원에 나서 주었다. 간사이에서는 조선어교육연구회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고, 도쿄에서는 조선어연구회가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한국어학자도 초청해서 2004년부터 여름 방학마다 1주일 정도의 집중강의를 실행하였다. 2004년에 개최된 제1회 교토 연수와 제 1회 도쿄 연수의 프로그램을 표2, 3에 소개하겠다.

표2 2004년 제1회 교토 연수 프로그램 * () 안은 담당자

| | | | |
|------------------|-----------------------------|------------------|-----------------------------|
| 8 월 2 일 | I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유타니) | 8 월 5 일 | I 한일대조언어학2: 조사·어미·어휘 (유타니) |
| | II 일본의 한국어 교육사 (아마다 간토) | | II 한일대조언어학3: 오류분석 (유타니) |
| | III 음운론 개설·전서법 (송철의) | | III CAI입문 (유타니 유키토시) |
| | IV 형태론 (송철의) | | IV 교수법 (김수정) |
| 8 월 2 일 | I 통사론 (임흥빈) | 8 월 6 일 | I 평가론 (김수정) |
| | II 의미론 (임흥빈) | | II 실러버스 작성법 (김수정) |
| | III 어기설 (우치야마 마사 하루) | | III 시청각교재 사용법·수업 운영법 (하세가와) |
| | IV 북한의 언어와 언어 정책 (고영진) | | IV 발음 교육 (하세가와 유키코) |
| 8 월 2 일 | I 회화 지도법 (오대환) | 8 월 7 일 | I 교육 실습 1 (수강생 발표) |
| | II 쓰기·글짓기 (오대환) | | II 교육 실습 2 (수강생 발표) |
| | III 듣기 (오대환) | | III 교육 실습 3 (수강생 발표) |
| | IV 한일대조언어학1: 한자음 (유타니 유키토시) | | IV 교육 실습 4 (수강생 발표) |

표3 2004년 제1회 도쿄 연수 프로그램 *() 안은 담당자

| | | | |
|-------------------|-------------------------------|-------------------|----------------------------|
| 8 월 23 일 | I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 (노마 히데키) | 8 월 26 일 | I 북한말 (정희원) |
| | II 교재론: 선택과 작성 (노마 히데키) | | II 정서법 교수법 (정희원) |
| | III 발음 실습: 단음에서 음운까지 (강현화) | | III 한자음과 한자어 교수법 (이토 히데토) |
| | IV 쓰기 교수법 (강현화) | | IV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사와 유형론 (이토) |
| 8 월 24 일 | I 문자와 발음 교수법 (조의성) | 8 월 27 일 | I 말하기 교육: 담화론적 접근 (김진아) |
| | II 문법: 조사 교수법 (남윤진) | | II 말하기 교육2: 언어행동 (오고시 나오키) |
| | III 문법2: 용언의 활용형 교수법 (노마 히데키) | | III 교육 실습 1 (노마 히데키 + 김진아) |
| | IV 교육실습 워크샵, 교수법 (노마 + 남윤진) | | IV 교육 실습 2 (노마 히데키 + 김진아) |
| 8 월 25 일 | I 어휘: 동사 교수법 (강현화) | | |
| | II 어휘2: 형용사와 부사 교수법 (강현화) | | |
| | III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예절 (정희원) | | |
| | IV 읽기 교수법: 정확성을 위해 (이토 히데토) | | |

한국어학의 각 분야의 기초지식과 교수법, 그리고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과목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간사이와 도쿄에서 따로 열고 2007년에는 두 연수회를 통합해서 개최하였으며, 그 후 2013년까지는 도쿄와 간사이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여 첫회 이래 매년 수십 명이 참가했다. 연수를 받고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언어학의 전문적인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았지만, 수강생끼리 토론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며, 사후에는 개별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해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때 교사 교육을 담당했던 한국어 연구자들이 집필한 “한국어교육논강좌”(노마 히데키 편저, 전 4권, 구로시오출판사)도 이 시기 일본의 한국어 교육계의 큰 성과라고 본다.

마침 비슷한 시기인 2005년 한국에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어 교사 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경 이후 일본의 한국어 교사 지망생들과 현역 교사들이 한국 대학에서 열리는 교원양성과정에 유학을 가거나, 온라인 과정에 등록하기도 해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도쿄의 세종학당에서도 한때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이 열렸으나 온라인 과정이 보급한 탓인지, 몇 년만에 중지되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 연구회 등에 의한 한국어교사연수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본 국내의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은 1990년도 말부터 약 15년간의 시행착오 시기를 거쳐 나름의 성과를 냈으나, 결국은 한국의 각 대학에서 실시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등으로 흡수된 셈이다.

현재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대규모 어학원이나 대학 등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어 교사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종전부터 한국문화원이나 한국교육원에서 실시되어 온 한국어 교육학 강의나 문화론 강의를 듣는 것을 통해 교사 자질 향상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4. 한국어 교사 교육의 과제

이상과 같이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는 여러가지로 외형적인 문제가 있어 사실은 한때보다 수그러져 버린 느낌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의 대부분은 한국 대학 등의 한국어교사연수과정에 의지하고 있는 셈인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오랜 학습자이기도 한 발표자가 종전부터 한국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해 느껴 온 몇 가지 위화감을 밝히고자 한다.

4.1 일본의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

발표자가 위화감을 느껴 온 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한국 외의 나라에 사는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교사에게 한국 특유의 감각이나 정서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나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를 보면 한국에 살아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응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정서나 응답 스타일을 제시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몇 퍼센트가 앞으로 한국에 살 일이 있느냐 하면 아마 한 자리 수 이하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때 한국어의 발음, 문법, 표현, 이해 등이 한국인처럼 된다면 학습자로서 좋아할 일이지만 그 발신 내용과 감각까지 한국인과 똑같을 필요는 없고 학습자의 아이덴티티에 근거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똑같이 되고 싶어한다든가 그러고 싶은 시기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발표자도 한때 한국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 또 그런 시기가 있어야 언어 구사능력도 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되기를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더구나 그 사람이 한국에 산다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배우면 되는 것이지 한국 외에 사는 학습자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표준어 규정’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 사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일 텐데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나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단어나 표현, 표기가 표준적이지 않다고 해서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는 원래 정확성이나 유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표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주 접하는 말이나 표기 등을 어렵게 외워서 썼더니 표준적이지 않으니 다르게 하라고 하면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뭉뭉 하기 바래요’는 ‘바라요’가 옳다, ‘갈려고 한다’는 ‘가려고 한다’라고 해야 한다, ‘다음주’는 붙여 쓰지 말고 띄어 써야 한다 등등. 학습자에게 이들 표현이나 표기가 훨씬 익숙하고 그것을 썼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말것이다. 그런 것을 고치느니 더 쓸만한 표현들을 익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이 아닌가 한다.

물론 학습자의 목적이 아름다운 표준어를 익히겠다든가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문제는 다르다. 요컨대 학습 환경과 학습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학습자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규범성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학습자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시점이 교사 교육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2 새로운 문제의 부상

이 몇 달 사이에 chat GPT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행정이나 경영,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chat GPT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은데 언어 교육계에는 이미 자동번역기 사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번역기 이용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금지시킬 것인가.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한국어 교육계에서 동의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발표자는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외국어 교육의 목적 중 하나에 ‘지적 단련’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지만 의사소통에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경우라도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고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뇌가 단련을 받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라틴어가 바로 그렇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영어에도 원래 그런 효과를 노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어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쉬운 말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어느 나라 말이든 웬만한 내용을 번역기만 있으면 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외국어를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된다. 더구나 일본에서 (일본어 환경에서) 1주일에 1-2시간 1-2년만 공부한다고 그런 체계를 내재화해서 말을 이해하고 발신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궁하면 어차피 번역기를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번역기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형식적인 말이나 응답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즉각 응해야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번역기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둘째 신어, 생략, 토막말, 비논리적인 문장 등은 번역기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기를 쓰려면 신어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생략을 삼가야 하고 논리적인 원문을 만들어서 번역기에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수업 시간 수가 한정되어 기초단계를 마무리할 여유가 없다면 상기한 즉각적인 응답 연습과 번역기의 슬기로운 이용방법을 학습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눈 앞의 학습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chat 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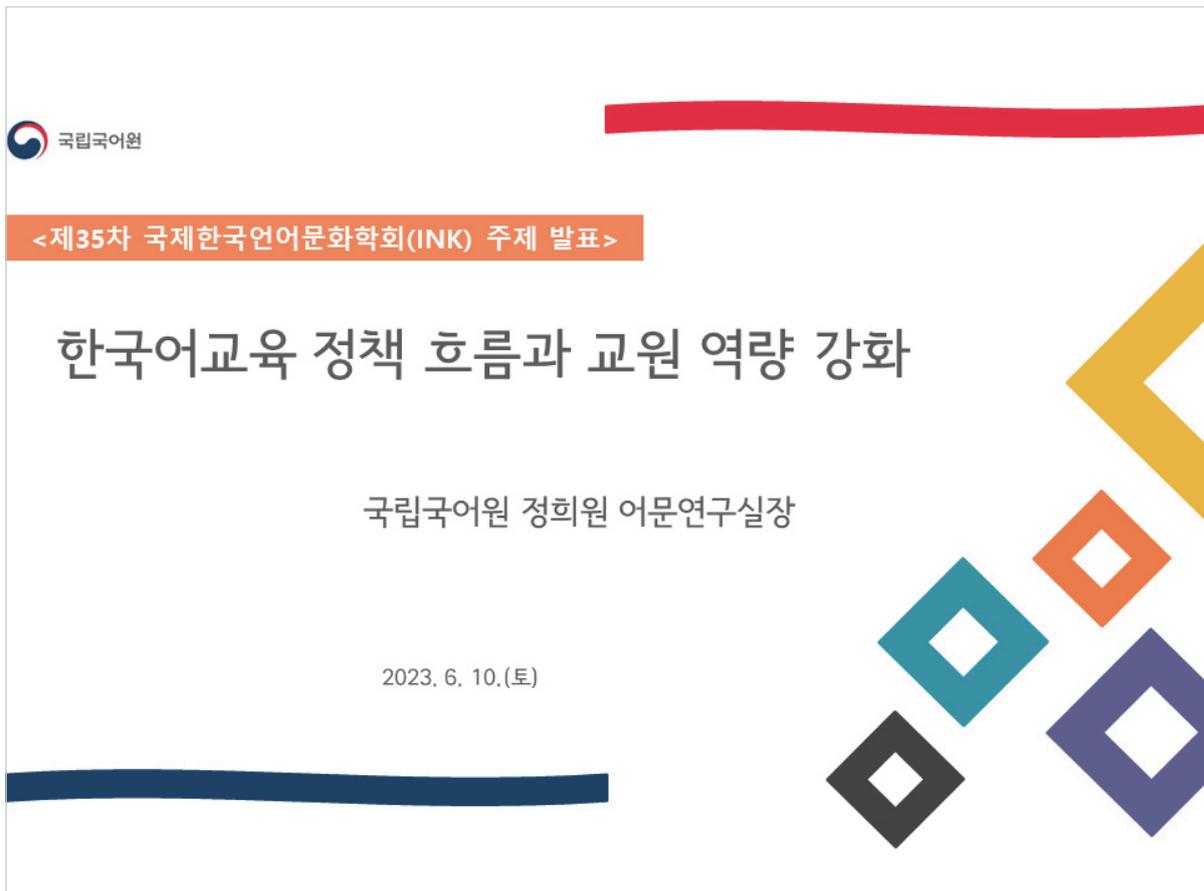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어진 테마에 맞추어 일본인인 발표자가 직접 관여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관한 과거의 성과와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해 보았다. 발표자가 일본 대학과 지자체 등의 시민강좌, 그리고 어학원 등에서만 활동해 오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도 모른다. 특히 재일 한국인 교육 관련 부분은 경험이 없어 논할 수가 없었던 양해를 구한다.

주제 발표 II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과 교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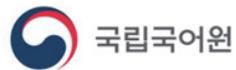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과 교원 역량 강화

정희원(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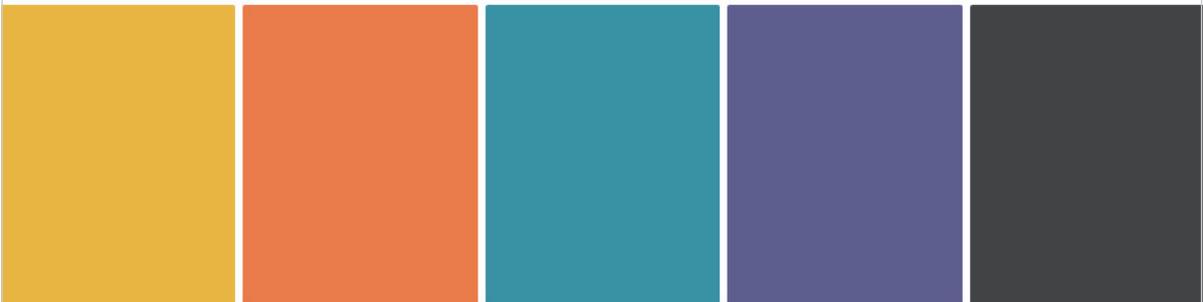


차 례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3.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 K-티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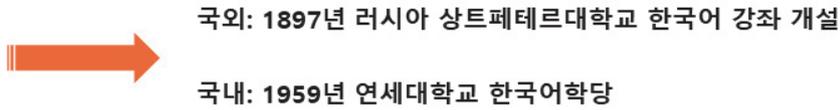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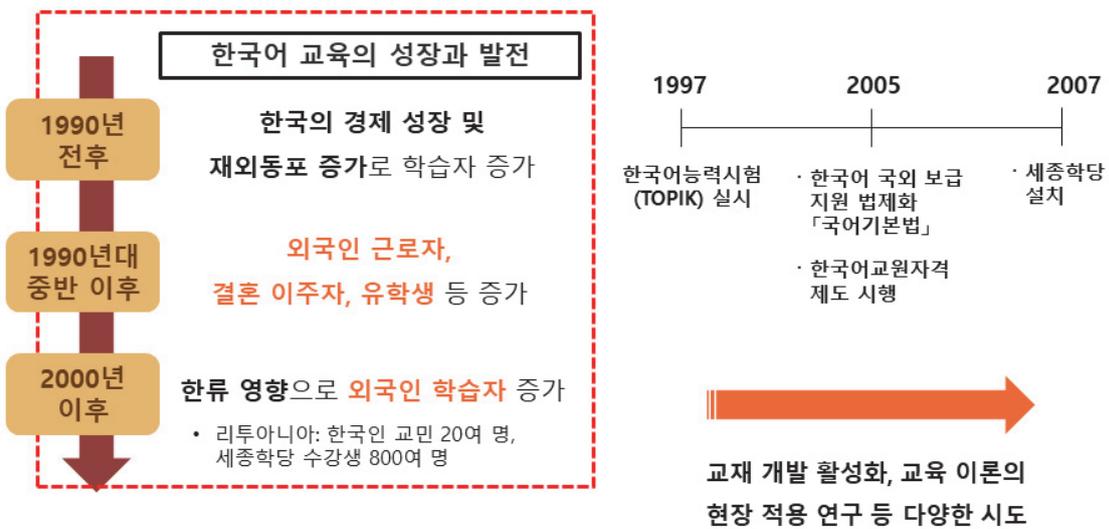
❖ 정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배경

- 1990년대 이후 한국어교육의 양적 성장
- 학습자 구성 다변화(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내국인)
- 국력 신장에 따른 국가의 기능과 역할 확대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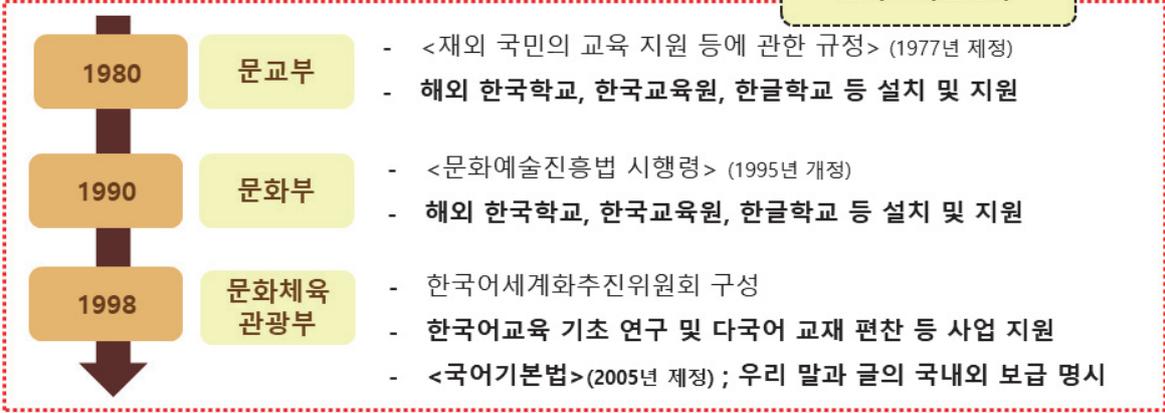
❖ 한국어 교육의 전개 과정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 한국어 교육의 전개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한국학의 국외 보급 지원, 재외동포 대상 지원 강화
- 교육부**
 - 국내 - 중도 입국 자녀 증가로 인한 KSL 교육 지원 강화
 - 국외 -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채택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국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 참여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2. 정부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현황

| 부처 | 주요 사업 내용 |
|--|---|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국내 이주민 자녀 정규 교육 주무 부서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운영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 실시 - 유학생 지원 및 국외 한국학 진흥 사업 - 국가 표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 - 국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지원 |
|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증진 사업과 재외동포 지원 주무 부서 -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국외 한국학(한국어교육) 지원 - 재외동포 사회의 한글학교 지원 - 공적 개발 원조(ODA) 차원의 한국어교육 봉사 활동 |
|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 세종학당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기본법(2005)에 따른 한국어 국외 보급 주무 부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 한국어교육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재교육 - 타 부서 한국어교육 사업 지원 - 세종학당 운영 |



|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 | 1.2. 정부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현황 | |
|----------------|--|--------------------------|--|
| 부처 | 주요 사업 내용 | |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 사회 적응 지원 주무 부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결혼이주민의 입국 전 현지 사전 한국어교육 | |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한국 사회통합 추진 주무 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실시 -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시 한국어 능력 인증 요구 | |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진출 외국 인력 관련 정책 주무 부서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 TOPIK) 주관 -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한국어교육 실시 | | |



|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 |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의 환경 중심- | | | |
|--|----------------------|------------------------------|-------------|----------------|-----------------------|
| <p>❖ 한국어 사용 현황</p> <div style="border: 1px dashed orange;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어 사용 일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제1언어 사용 인구: 77.3백만 명(전 세계 14위, 1.004%) ▪ 한국어 제2언어 포함 사용 인구: 79.4백만 명(전 세계 22위) </div>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출처: 한국어확산계획(20년 9월)</p> | | | | | |
| <p>한국어 사용 인구 ('18년) (단위: 만 명)</p> | 한국어 모국어 사용 규모 | | | | 한국어 제2언어 포함 규모 |
| | 우리나라 국민 | 재외동포 | 북한 인구('16년) | 총계 | 79,400(세계 22위) |
| | 5,171 | 794 | 2,577 | 77,300(세계 14위) | |
| <p>제2언어 포함 사용 인구 순위(괄호: 제1언어 기준 순위)</p> <p>1위: 영어(3위), 2위: 중국어(1위), 3위: 힌디어(4위), 4위: 스페인어(2위), 5위: 프랑스어(15위) . . . 12위: 독일어(17위), 13위: 일본어(8위) . . . 22위: 한국어(14위)</p> | | | | | |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의 환경 중심-

❖ 전 세계 한국어 수요 증가 추세

- **800만명**: 2021년 12월 기준 '듀오링고' 앱 한국어 학습자 수
- '오징어 게임' 방영 후 2주 내 신규 학습자
- **107개국 1,408개 대학**: 국외 한국어·한국학 강좌 수
- 2021년 12월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 '22년 **82개국, 244개소**: 전 세계 세종학당 수

* 출처: 세종학당재단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세종학당 지정 (국/개소) | 54개국 171개 | 57개국 172개 | 60개국 180개 | 76개국 213개 | 82개국 234개 |
| 세종학당 수강생 | 56,202명 | 61,810명 | 72,713명 | 76,528명 | 81,476명 |
| 세종학당 파견 교원 | 119명 | 125명 | 140명 | 159명 | 232명 |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의 환경 중심-

❖ 글로벌 한국학 진흥('21년)

- '21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 보고서

| 유럽 지역 한국(어)학 강좌 운영 | 국가 | 현지 대학교 | 한국학 강좌 제공 |
|-----------------------|------------------|--|--|
| | 69개국 | 264개교 | 1,250건 |
| 유럽 지역 한국(어)학 강좌 운영 지원 | 교수직 설치 지원 강좌 | 교원 고용 지원 강좌 | 객원 교수 파견 강좌 |
| | 서유럽 5개국 7개 대학 | 동유럽 3개국 3개 대학 서유럽 3개국 5개 대학 | 동유럽 14개국 19개 대학 서유럽 5개국 6개 대학 |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외 환경 중심-

❖ K-콘텐츠 열풍

⇒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20))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 한국어 학습 수요

-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

❖ 한국 문화 콘텐츠의 향유 → 한국어 학습으로 견인

-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를 실제 학습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한국어교육 학습자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

- 한국어교육 수요 시장: 학문적 목적 ↔ 취미 수준으로 다양한 층위, 전방위적으로 확대



국립국어원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4. 국가 중심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시기별 흐름

❖ 현재 국내 한국어교육 정책

- 법과 제도로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 개입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현행 법률상 한국어교육 정책의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법률 제16589호)·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기반한

국어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같은 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조항 신설, 한국어교육 정책 관련 내용 법률 명시

❖ (2006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실시

❖ (2007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국어정책과

- (국외) 세종학당 개설, 한국어 교육과정·교재를 개발/ (국내) 한국어 교원과 학습자 연수 실시 확대

❖ (2011년) 세종학당재단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외 한국어 보급과 교육 확산 업무를 전담 실행



국립국어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이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10년~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 교육부: 2012년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등급화를 제시
- 교육과정 수립과 교재 개발의 참조 기준을 제시

❖ (요구 분석) 교육 환경, 교육 대상, 다양한 학습 목적 적용·변용 기준 필요

-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양한 학습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 필요
-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편의를 제공 vs.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
-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도 필요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2020.11.27.)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11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 특정 지역 · 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 제시
- 포괄적인 성격과 목표의 설정
-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
- 구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 평가의 방향성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지향점

- 교육 환경 특수성에 부합하는 상세한 개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국립국어원 교재 개발

- 교육 현장과 관계 부처의 수요 파악 → 학습 대상에 따른 교육 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 → 교재 개발 → 출판 작업 → 현장 교재 보급 → 만족도 조사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반 체계적 교재 개발
- 국내외 학습자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세종학당 학습자, 재외 동포 유아, 다문화 가정 성인 및 자녀, 이주민

❖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 7. 12.)

- 부처 간 업무 조정예 따라 교재 개발 업무는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부처 간 중복 교재를 개발 방지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 **교재 개발: 부처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습자 대상**
- ❖ (2000년대~)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이주 노동자 등 국내 이주민 급증
 - 이주민 언어 능력과 환경에 걸맞은 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름.
- ❖ (2008년~) 국내 이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교재 개발 착수
- ❖ (2009년~2012년) 교재 개발, 출판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개발
 -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1~2)> 개발
- ❖ (2009년~2013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정책 과제 대두
 -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배우기(1단계~3단계)' 교육 자료 개발, 출판
- ❖ (2012년~2014년)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국내 학령기 학생 교육
 - <표준 한국어(1~2)> 개발,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 **교재 개정: 개정된 교육 과정 내용 반영, 교재 내용과 자료 시의성 확보**
- ❖ (2017년~2019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초급1~중급2)> 출판
 - 다문화 가정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전면 개정
- ❖ (2018년~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초급, 중급)> 출판
 -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기본 교재 개정 작업
 - 2018년 기초 연구, 2019년~2020년 개발
 - 2020년 12월 본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등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2017년~2020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학습 도구) 출판

- 교육부 「한국어 교육 과정」 2017년 개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 (2017년) 기초 연구
(2018년~2019년) 본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총 51권을 개발
(2020년) 출판 작업
-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의사소통 한국어'
- 교과 적용 및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학습 도구 한국어'
- 교육부 교재 보급 담당, 중앙다문화센터 KSL 활용 콘텐츠 제작·보급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2017년~2019년) <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Fun Korean)>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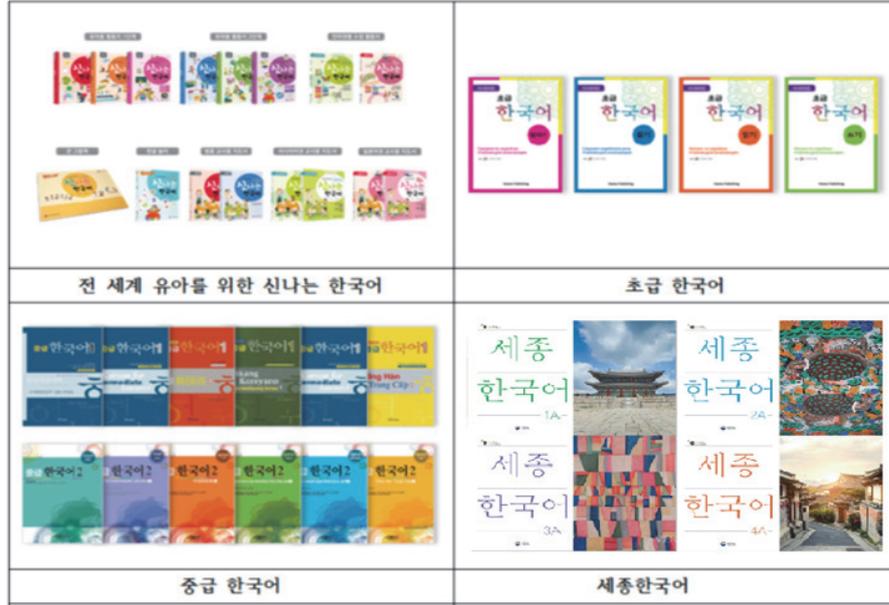
- 재외 동포 유아(만 3~6세)의 이중 언어 능력과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 '유아용 활동지', '한글 놀이', '큰 그림책', '교사용 지도서' 구성
- 유아 인지적 발달 단계 고려
- 일상생활부터 한국 문화, 총 18개 주제
- 학교에서 배운 내용 가정에서도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 포함
- 언어권별(러시아어·일본어) 교재 개발, 2020년에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국립국어원 개발 국내외 한국어 교재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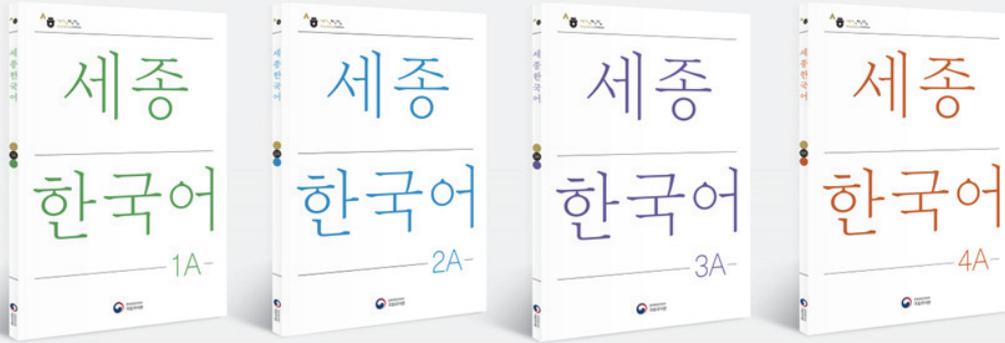
- ❖ '11년~'13년 초판 개발 및 출판 / '19년 증보판 출판
- ❖ 기존 교재*의 개정 주기 도래(7~8년)로
- ❖ 교육 내용 및 삽화·디자인 등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 추진 단계 | 추진 내용 | 추진 연도 |
|-----------------|--|-----------------------|
| 개정 필요 기초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 재정비 • 세종학당재단/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세종학당 표준 교재 정비 사업 • 국립국어원/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정숙 교수) ** (수행 기간) 2018. 11. 15. ~ 12. 28. (약 1.5개월) | 2018 |
| ↓ | ↓ | ↓ |
| 교재 수정·증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보판 <세종한국어> 발행 • 국립국어원/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정숙 교수)하우출판사 | 2019 |
| ↓ | ↓ | ↓ |
| 교재 전면 개정 기초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정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기개발 교재 사용 의견 및 요구 조사 - 교재 내외적 구조 및 내용 연구 | 2019 |
| ↓ | ↓ | ↓ |
| 1단계 개발 집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연구(2020~2021) 착수 •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재 체계 확정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 제작(2020~2022) 착수 • 국립국어원/공연박주식회사 - 주교재(기본 교재, 더하기 활동) 개발·편집 • 현장 시범 적용, 수요자 요구 반영 등 계속 | 2020 |
| ↓ | ↓ | ↓ |
| 2단계 집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연구(2020~2021) 완료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제작(2020~2022) 계속 - 주 교재 보완 및 보조 자료 개발·편집 • 현장 시범 적용, 수요자 요구 반영 등 계속 | 2021 |
| ↓ | ↓ | ↓ |
| 3단계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 제작(2020~2022) 계속 - 출판을 위한 편집·제작, 내용 수정·보완 • 교재 개발팀 지원 계속 | 2022 (9월 1일 초판 발행) |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 (개정) <세종한국어> 2022. 9. 1. 발행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 한국어 수업 현장의 유형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다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 교원 양성 목적
-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 기회 제공
- 최신 한국어교육 동향 이해 및 전문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연수 사업명 | 연수 대상 | 연수 목적 |
|-----------------------|---|--|
|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 다문화, 법무부, 교육부, 대학 교원 등 주관 부처별 한국어 교원 | 국내 교원 보수 교육 |
|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 외국 국적의 한국어 교원 (예비 교원 포함) | 국외 한국어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초점 |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 | 해당 학술대회 회원 및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차원의 연수 제공 |
|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온라인연수회 | 학술대회 개최 지역 현지 교원 대상 *23년의 경우 유럽 현지 교원 대상으로 진행 예정 | |

*'배움이음터'란 배움을 가르침으로 다시 이어가는 교육의 터전을 의미하는 국립국어원 주최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회 공식 명칭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다문화 관련 부처 소속 한국어 교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향상
- 한국어 교원 대상 재교육을 통해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양적, 질적 성장
- 혼합형(집합 연수, 실시간 화상 연수 동시 진행) 연수 운영을 통해 수강 기회 확대
- 대학언어교육원, 법무부/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원 대상 연수 개최('23년 7~8월 예정)



[사진] 2022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현장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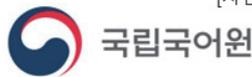
2.3.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

❖ 국외 한국어교원(외국인) 대상 연수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초점
- 최신 한국어교육 동향 및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을 알리고 각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 국외 거주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약 5주간 대면 연수 개최
 -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한시적 온라인 연수/ 온,오프라인 동시 연수 병행하여 진행



[사진] 2022년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현장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 연수

❖ 국립국어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와의 업무 협약 체결 및 대면 연수 개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을 대상, 매년 집중연수회 주관
- 현지 교원 맞춤형 재교육 연수 기회 제공 및 현지 교원과의 네트워크망 구축

❖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온라인 연수회

-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한국언어학회(ICKL)와 공동 온라인 연수회 개최
-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개최지에 따라 학회 회원 및 현지 교원 대상 재교육 기회 제공
- 현지 교원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강의 제작 및 연수 제공



[사진] 2022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강의 영상

3.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 국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변화

⇒ 한국문화 경쟁력 강화와 한국어 위상 상승으로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합격자
: ('97년)2,692명/711명 > ('18년)329,224명/185,624명
- 해외 한국어,한국학 강좌 운영 대학 및 연구소
: ('07년)55개국 632개 > ('17년)105개국 1,348개
-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격상('20년)
- <헝가리, 캄보디아, 오르단 등>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21년)
- <태국> 대학입학시험에서 학생 3,770명이 한국어를 선택('22년)
- ▶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교육은 양적 성장을 달성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 국외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비해 현지 교원은 여전히 부족

- 주요 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부족
- 현행 국어기본법상 국가자격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국외 취득은 어려운 상황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 4.5%(전체 70,708명 중 3,207명)
- 현지 문화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높은 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베트남,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한국어 학원들의 교육 품질 개선 필요>(한국일보, '21. 3. 25.)
: <한국어 교육기관은 많은데 베트남인 교사가 많이 부족>(경향신문, '22. 11. 23.)

▶ 국외 한국어교육 다층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와 전략적인 대응 필요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한국일보

짜오! 베트남

"선생님이 없어요"... 베트남 한국어 교원 양성 시급

입력 2021-03-25 05:00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요소도 여전히 많다.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한국어 교원 양성은 기본이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한국어 사설학원들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다.

(중략)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들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다. 호찌민 한국교육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7명의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했지만 기준 수요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의 경우 베트남에 전체의 7%에 해당하는 15개 학당이 있으나, 학생 규모는 1만2,000여명으로 17%를 차지한다. 당 연히 교원 일인당 학생 수도 제일 많다.

『 한국일보 』, 2021년 3월 25일 기사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고급’ 한국어는 가르칠 교사가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교사 대부분
교사 양성 시스템 개편·교재 보급 절실

K-콘텐츠의 선풍적인 인기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급 이상의 단계 예선 가르칠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신조어, 유행어, 구어체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월 학계 등에 따르면, 중급 이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풀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진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이하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교사가 많이 있으나, 4급 이상으로 가면 교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인 1, 2급과 중·상급급인 3~6급으로 나뉜다. 초급 단계는 듣기와 글쓰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고급 단계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고급 단계는 언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문화적인 부분까지 이해해야 한다. 특히 쉽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또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토파에 한국어 말하기 부분이 추가됐으나, 전반적인 말하기 부분 향상을 위해서는 높은 언어 능력을 가진 교사 양성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글교사 양성 교육 시스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은 물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교육부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 위해 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 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재를 개

발 보급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한글 교사 양성에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의 전반적 콘트론타워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다. 문광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총 3단계로 나뉘져 있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또는 온·오프라인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교육 능력 검증시험에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김지형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서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외국인 한글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교원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는 언어이고 한글은 문자”라면서 “한글을 읽고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어 배울 때 영어 콘텐츠로 배우는 것과 같이 외국인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한국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이는 언어로서 한국어 교사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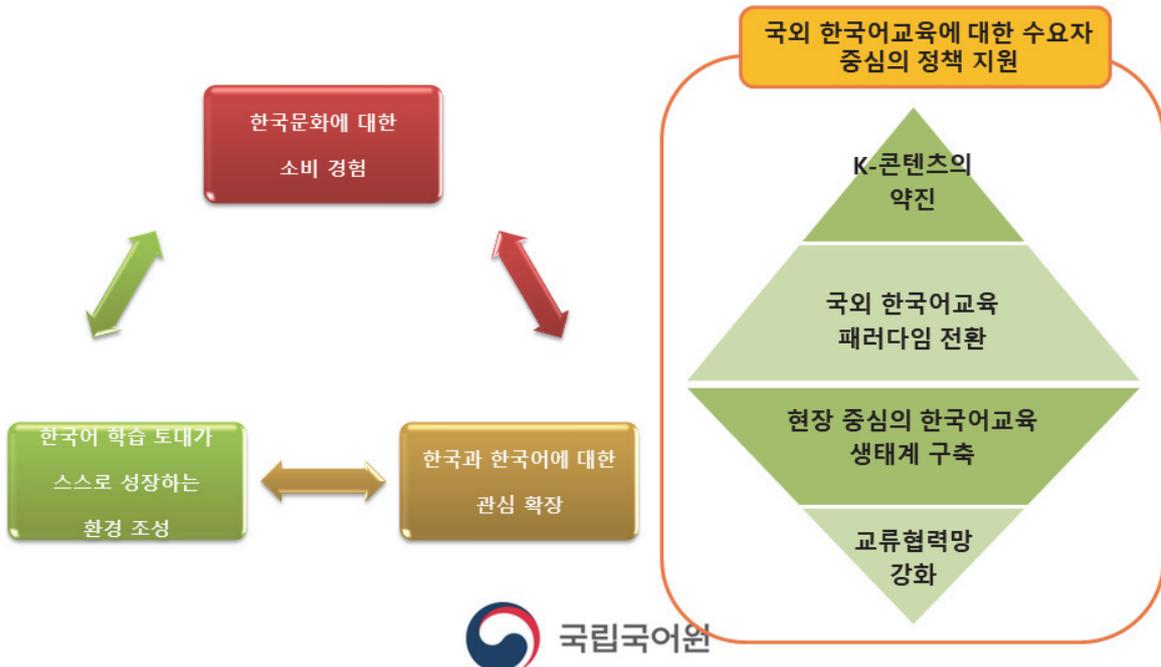
교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함께 한국어 교사들의 자립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년 동안 한글 교사로 일한 이재은(53)씨는 “강사들이 주 4일 출근 해 2년의 수입을 하는데, 돈을 강의한 시간으로만 받았다”며 해외 한국어 교사들이 처한 자립금 고충 구조를 지적했다.

김 교수 역시 “교사 처우 문제도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론화 되어야 할 문제”라며 “적어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준의 답에는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23년 4월 6일 기사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국외 한국어교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의 확장과 전환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 국외에서 현지인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 양질의 국외 한국어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 한국어 '학습자'가 '선생님'이 되어 국외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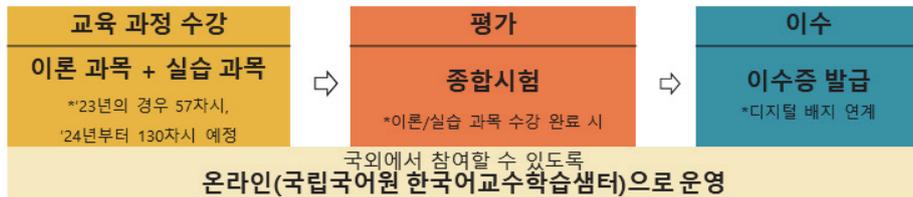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4. K-티처 프로그램의 내용

❖ K-티처 프로그램 개요

- 국외 활동 한국어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
- 국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하여 국외 한국어 상황에 맞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과정 이수자에게는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대상] (23년)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수강한 전·현직 한글학교 교사(한시 운영)
(24년 이후) '국외 대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교원'



※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과는 연계되지 않는 별개의 교육 프로그램임.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4. K-티처 프로그램의 내용

❖ <K티처 프로그램>과 <한국어교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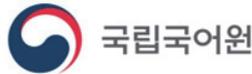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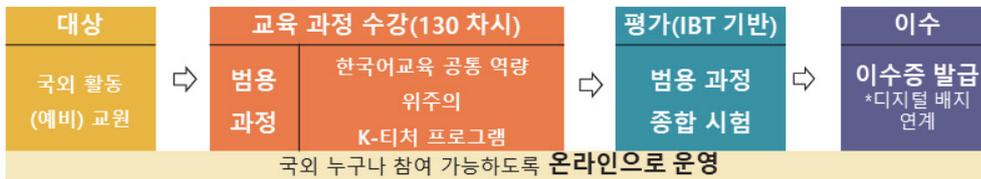
| | K-티처 프로그램 |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자격 기준) |
|---------------|--|---|
| 목적 | 국외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수요에 대응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 부여 |
|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 국어기본법 |
| 결과 (발급 주체) | K-티처 프로그램 이수증 (국립국어원장) | 한국어교원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비용 | 무료 | 과정 이수를 위한 수강료 |
| 과정 구성 | √ (범용 과정) 총 130차시 : 이론 과목 (100차시) + 실습 과목(30차시) √ 교육 대상에 맞게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모듈형 콘텐츠 구성 가능 | √ (국어기본법 시행령 근거) 총 120시간 : 이론 과목(100시간)+실습과목(20시간) |
| 평가 | 온라인 평가(종합시험) 응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어디서나 가능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필요 |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5. K-티처 프로그램 향후 계획

❖ 2024년 운영 계획

- [대상] ('23년) 한글학교 교사 과정 종료
⇒ ('24년) 범용 과정 시작, 국외 활동 (예비) 교원으로 대상 변화
- [교육 과정 및 평가]
 - 온라인 콘텐츠 83차시 추가 개발('23년), 완성된 130차시 과정으로 운영
 - 범용 과정에 맞는 종합시험 개발('23년)하여 적용
- [운영 및 홍보]
 - 국외 소재 한국(어)학과 및 관련 교육 기관, 관련 학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협력 관계 도모 방안 고려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5. K-티처 프로그램 향후 계획

❖ 2024년 이후 계획

- [특징] 현지 특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콘텐츠 과정 개발 및 운영
 - * 범용 과정 + 언어권별 맞춤형(언어·지역 등 학습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자질 향상 지원
⇒ 한국어 고급 학습자 양성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확대
 - 요구 조사, 현장 분석 등을 통해 교육 내용 도출, 현지 특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발



* (예비 교원): 국외 대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자



고맙습니다.

